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P. 295

제 1독서 (사도 6, 1-7 절)
제 2독서 (베드로 2, 4-9 절)
복 음 (요한 14, 1-12절)

순정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⑤5098)

□ 감 론 □



길이신 예수

소 순 형 신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분이 길이요, 그분이 진리이고 생명 자체이신 분이시라는 말씀이다.

길 - 우리가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길이다. 만일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곳을 가려면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른다. 예를 들어 산을 넘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을 가자면 수풀이나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곳으로 간다면 쉽고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길이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주께서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느님이란 목적지를 가는데 주께서 길이 되어 주신 것이다. 주께서 길이 되어 주셨으니, 주님이라는 길을 밟고 가면 된다. 즉 주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주님의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신문지상이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거의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는 교통사고는 길의 법칙을 어기는데서부터 생긴다. 길의 법칙을 무시하고 운행된 차량이 대부분 사고를 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자기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길의 법칙을 잘 지키는 데서 서로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난 생활이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길이라고 하심은 그분과 결합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셨다. 또 길 자체이신 분이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길에서의 이탈은 진리와 생명에서의 이탈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찬 생활이란 길이신 예수를 따라 사는 생활이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사는 생활이다. 그 생은 값지고 참된 생활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에서의 이탈되지 않은 생활이란 성부를 만날 수 있는 생활이며 그것은 곧 진리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생활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신 것이다.

<한들 본당 주임신부>



하느님은 주실 겁니다.

—시골 청년의 소리—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데 너무나 무성의하고 안일하고 생각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느님의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으며 운영되는지, 누구의 노력으로 유지가 되는지를 전혀 교우가 다 알고 있을까요? 우리 젊은 신자들이 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형님들, 그리고 아우들. 주일날이면 무슨 일이 그렇게 많고, 또 바빠서 미사가 끝나기 무섭게 공지사향도 듣지 않고 성당문을 나섭니까? 특히 태종교우가 많은 본당에서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한 가정의 자녀가 집안살림 행편을 잘 모른다면, 아마 그 집은 행복과 불행이 순바꼭질하는 집안이 되겠지요? 우리가 저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느님의 성전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었고, 그 피가 영커서 성전이 이루어되었습니다. 고난의 역사가 기록된 우리의 성전을 어찌 하시렵니까? 아직도 이 성전의 운영이나 재정문제를 모른척 하시렵니까?

「불효자식도 자식인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성경책을 보니까 집나간 자식에게도 소 잡아서 잔치를 해주더라. 언젠가는 나도 집을 찾아갈텐데...」하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별볼일없는 촌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도 못나고 무식한 주제에 몇 말씀 드림을 용서하세요.

이제 우리도 다같이 새로 시작해 보십시오. 교회내의 활동단체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본당 사도회장님을 비롯하여 교회살림에 고심하시는 여러 어른들께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힐끗 도와드립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자비로우신 당신의 사랑을 한없이 주실 겁니다.
—정규암(화산본당 청년회 부회장)

순정이 산책



「마르코스 글북」

성 명 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수원 말씀의 집에서 춘계 주교 정기총회에서 여러가지 안건을 심의하는 한편, 특히 **동일방직 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기 위하여 관계 주교들 및 피해 당사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이와 관련된 **최근의 노동 사회안의 움직임**을 검토한 후 주교단의 의견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고 별도로 김추기경에게 기자회견을 위촉하였다.

성 명 서

1.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최근에 일어난 동일방직 사건을 비롯하여 수많은 근로자들이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따라 노동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탄압을 받아오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기업체로부터 부당한 이유 아래 해고를 당하게 된 불행한 사태를 증시한다. 이는 근로자들의 노동권 박탈과 생존권 위협이라는 중대한 인권유린으로 판정하며 민주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사로 본다.

2. 우리 주교단은 동시에 위에 사건등을 전후하여 홍지영 저 "산업선교는 무엇을 노리나"라는 책자가 다량으로 노동계에 살포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한 내용의 강연회등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적인 노동운동을 왜곡 해석하여 용공 또는 친공분자들의 노동계 침투처럼 선전 및 선동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로 본다.

무엇보다도 이같은 왜곡과 날조는 노동계의 불신과 분열, 더 나아가 종교계에 대한 사회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끝내는 국민간의 일체감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켜 국가발전 및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국민의 단결과 국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민적 양심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이같은 책자와 강연회가 당국의 묵인 또는 비호 아래 공공연하게 발행, 자행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짙은때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3. 이에 우리 한국 주교단은 정부 당국이 먼저 이같은 우리의 충정을 깊이 이해하여 관계 기업체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원만히 또는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망한다.

- ① 그리스도교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부당 해고된 모든 이를 즉시 복직시킬것.
- ② 동일방직 인건공장 노동조합을 비롯하여 모든 노동조합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것.
- ③ 그리스도교 근로자들을 책자 또는 강연회를 통해서 용공 내지 친공분자로 왜곡 선전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시킬것.
- ④ 생계비 이하의 저임금을 일소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과단성있게 실천에 옮겨줄 것.

4. 우리 주교단은 이같은 태도 천명이 결코 우리 자신 혹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현대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노동자들이 결코 생산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임을 믿는다.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의식이 개발되어, 노예와 같이 약하고 비굴한 태도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지니고 노동에 종사할 때에 참된 사회발전이 있고 정치, 문학, 모든 면에 있어서 참된 의미의 국가발전이 있으며, 국력이 배양될 수 있다는 믿음에 서 이 소신을 밝힌다.

5.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 근로 대중을 비롯하여 가난한 이들, 힘없는 이들을 위해서 참된 봉사를 다하지 못했음을 이 기회에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우리 자신 역시 노동자를 형제애로 충분히 아껴주지 못하였고 그들의 문제를 너무나 자주 외면하여 왔음을 깊이 자괴(自愧)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뜻과 같이하는 모든 선의의 국민들과 함께 많은 가난한 자와 근로자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의 마음의 회두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 교회가 또한 이같이 쇄신되도록 진심으로 하느님께 기원한다.

아울러 모든 근로자들 역시 어려운 역경속에서나마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에 빠짐없이 건전한 마음과 굳건 성실로서 하느님의 창조사업과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에 동참하는 정신으로 조국 발전과 국력 배양에 값진 노동력을 바치고, 동료 근로자들과 단결하며, 사용자측과도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닌 한에는 언제나 상호 협조하는 정신을 먼저 갖도록 당부한다.

6. 끝으로 우리 주교단은 정부와 국민이 모두 하나되어 조국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갈 수 있게끔 같은 꿈을 지니고 매진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이다.

1978년 4월 8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설계·김리·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건축연구소

1 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 3-7780, 3-(야간)1449

교우 여러분의 성원속에 자라는 한국운수는 적은 자본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분을 구합니다. 강경, 함열, 황등, 신태인, 대야, 진안, 장계, 고창, 순창 각 1개소 위와같이 대리점을 증설코저 하오니 아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流 은수 은돌 공사
(본사 지역 호남 슬장소)

전주 ⑤ 4341 군산 ⑤ 3032 이리 8629
합 동 압 (모이세)

□대학의 광장□



은퇴 신부님을 도읍시다.

은퇴 신부님을 도읍시다. 은퇴 신부님에게 관심을 모아 따뜻하게 모읍시다. 얼마남지 않은 외로운 우리 신부님들의 노후를 성당 가까이 모셔봄이 어떠할런지요.

어느날 신부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추운 방에서 사흘동안 아무것도 잠수시지도 못하고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초췌한 모습에 누구하나 보살피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며칠전에 수고해 주시던 아주머니가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교우 하나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속에서 견디다못한 아주머니 심정도 이해가 제시리라 믿어집니다.

사제는 영성적인 아버지요. 바로 우리 양들을 위해 평생 젊은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신 소중한 분들이 아니십니까? 바로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누가 찾아 가겠습니까? 한달에 한번씩, 아니 1년에 한번씩이라도 찾아가서 대화라도 따뜻하게 나눠드림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서 자식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신부님 생활에 살아 생전 조금이라도 효도하신다는 뜻으로서 다만 얼마라도 관심있는 사람들이 뚝뚝모아 은퇴하신 사제님을 모시는 것도, 제 의견은 한없이 기쁜 마음인것 같은데, 저희들 이외에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서로가 함께 힘을 합하여 열심히 도와 드립니다.

하느님께오서는 청하는 자에게 아니 들어주시는 일에도 끊임없이 백배로 갚아 주신다는 말씀도 성경구절에서 읽어보았다고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뜻있는 분들은 오는 4월 30일(일) 오후 3시에 가톨릭 센터 휴게실에서 만나뵈기로 할까요.

김치영(아나다시아), 안순금(테레사) 드림

□ 안 내 □

전북 의료 협동조합 의료혜택 바울

- 외래치료 : 60% 할인 (예 : 치료비 1만원인 경우...조합에서 6천원, 본인이 4천원부담)
- 입 원 : 70%할인 (예 : 입원비 10만원인 경우...조합에서 7만원, 본인이 3만원부담)
- 가입안내 : 1인당 가입금 200원과 월 조합비 1인당200원
※ 년 1회 무료 건강진단, 분만시 분만비 3천원 · 사망시 장례비 7천원도 지급
- 지정병원 : 전주 성모병원, 전북의대 부속병원, 정읍 종합의원, 김봉호 의원, 고외과 의원, 엄소아과 의원, 이신경외과 의원, 강 이비인후과, 전주 안과, 정창희 정형외과, 남원 지성외과의원, 고창 광주의원, 장계 매과의원.

요심이 (247)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찾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원준(야코버)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 월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⑤ 1 5 8 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 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⑤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교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코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 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옆 중앙시장통

(전화 ⑤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꾸르실로 전주교구 울드레야(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톨릭 센터) 오래만에 서로 우정을 나누는 울드레야에 빠짐없이 참여하여 대오를 정비합시다
 2.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5월 10일<수> 오후 2시-13일<토> 정오, 가톨릭 센터)
 - ① 중년의 형식과 다른 방법의 묵상회에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교구단위 묵상회는 많지 않습니다)
 - ② 50명을 대상으로 5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회비 6,000원)
 3. 군옥지구 가톨릭 학생연합회(4월 29일<토> 오후 5시, 문물동 본당)
 - ※ 인사이동(78. 4. 20일 팔호안은 전임 본당)

월명동 주임: 김치삼 신부 (휴 양)	삼 레 주임: 황인규 신부 (월 명 동)
덕진 주임: 서석기 " (삼 레)	파티마 주임: 문정현 " (휴 양)
사북 주임: 김정원 " (휴 양)	
- 중양 1 보좌 겸 J. O. C. 지도신부: 정승현(M. B. W. 아시아 연수회 참석)
 육군 입대: 박종근 신부(덕진 J. O. C. 교구지도), 유학준비(주교관): 김진석(중양 제1보좌)

(중양)

전화 ③3651
③3874

주임	신부	사도	김	홍	복
보좌	신부	보좌	서	영	성
보좌	신부	사도	범	범	배
사도	회장		이	복	석

1. J. O. C 단합대회: 23(일), 입실(서도)
2. 유아세례: 28<금> 어머니미사 후
3. 미사시간 엄수 바랍니다
4. 대학생 모임 안내
 - 정기회합: 매주<토> 오후 6시
 - 성가연습: 매주<일> 오후 7시
 - 지참물: 성경, 성가집
5. 다음주(30일) 공식미사 전례담당

복사: 오승원, 박영근
 독서: ① 장용근, ② 한문권 해설: 양학도

□ 지난주 봉헌금: 132, 265원

- 10분 빨리 나와 성가를 배운시다
3. 정성들여 봉헌금 미납되지 않도록 합시다
 4. 예비신자 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대상자들을 교리에 안내합시다
 5. 오늘 주일학교 1일교장: 허바스티아노(제석) 형제
 - 다음주일 1일교장: 이요셉(정우) 형제
 6. 주일학교: 매주 오후 3시 어린이미사-4시 (부모님들 주일학교에 빠지지 않도록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0, 165원

(서화동)

전화 ②2776

주임	신부	오	현	택
사도	회장	박	장	준

1. 미사시간 변경: 평일-아침 5시 반(월, 목) 저녁 8시(화, 수, 금, 토)
주일-아침 5시 반 저녁 8시
2. 개창 성가미사: 토, 일 미사전에 연습하오니 합본성 가책 사무실에서 구급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39, 407원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희
사도	회장	김	성	복

1. 가정방문: 인후동-25일<화>, 27일<목> 2일간 (구역장님, 반장님 대기하세요)
2. 교무금 납부의 날: 매월 마지막주는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78년 교무금 신입 못하신분 속히 신입 바람)
3. 유아 영세식: 4월 29일<토> 오후 1시 반 꼭 대부모님 모시고 나오세요
4. 명상의 집 축성식: 5월초 수리기금 납입 못하신분 납입바랍니다 (성당앞 명단 게시되어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46, 755원

(숲정리)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전	종	근

1. 누갈다 부녀회 소식: 4월 24일 오전 6시 반 출발 미레베 김안드레아 신부님 순교제 참배
2. 중, 고등학생 단합대회 및 신입생 환영회 일사-4월 3일, 오전 8시 출발, 장소-구 수원지
3. 숲정리 신용조합 조합원 총회: 4월 23일 11시 (조합원 되신 분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유아 세례식: 4월 28일 어머니 미사중
5. 사제양성 후원금: 본당 최고액 12,610원 정주복 선생님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8, 121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유	제	상

1. 예비자 교리: 23일부터 예비자 인도는 신자의 의무 많은 협조를...
2. 사순절 돼지저금통 반납하세요
3. 구역, 반 사권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4. 유아 세례: 매달 첫주(금요일), 착오없으시길...
5. 화단정리에 많은 꽃나루 기증 바랍니다
6. 주님과의 약속: 신축금 이행합니다

□ 사제양성 후원금: 108, 650원

□ 지난주 봉헌금: 84, 15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환
보좌	신부	유	종	성
사도	회장	유	성	석

1. 파티마 성당 축성식 결과보고: 본당교우 찬조금: 740, 200원
당일 축의금: 937, 600원
미사 봉헌금: 538, 150원
행사 총비용: 839, 360원
2. 대건신용조합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일자: 1978년 4월 24일 오전 10시
장소: 시민 문화관
행사: 기념식, 경품, 영화
3. 레지오 마리에 전래 25주년 행사
일자: 1978년 5월 5일 주관: 광주 세나투스
참례신청: 각 브레시디움 단장님

□ 교황의 날 헌금: 43, 525원 □ 인성회헌금: 450, 000원

□ 성소주일 헌금: 129, 27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조	종	택
사도	회장	김	성	호

1. 반회장 회의: 24일(월) 저녁 8시 빠짐없이 참석 바람
2. 성가 연습: 매주 공식미사 10분전(공동체 성가집)